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시장 일일동향 보고

(2020.12.31., 위기관리대책위원회)

1 코로나19 발생동향 (12.31 9:00 기준, 질병관리청)

○ 전 세계 현황

- 한국 포함 185개 국가, 확진 80,774,071명, 사망 1,783,644명

구분		지역별 상위 5개국 감염현황
아시아 (31개 국가·지역)	·확진 : 15,216,910명 ·사망 : 238,529명	인도(10,244,852, 사망148,439) 터키(1,364,242, 사망20,388) 인도네시아(727,122, 사망21,703) 방글라데시(511,261, 사망7,509) 파키스탄(475,085, 사망9,992) <해외지사 주재국> 중국(87,052, 사망4,634) 일본(226,596, 사망3,349) 대만(797, 사망7) 홍콩(8,778, 사망147) 몽골(1,175) 태국(6,440, 사망61) 말레이시아(108,615, 사망457) 베트남(1,454, 사망35) 싱가포르(58,542, 사망29) 카자흐스탄(199,555, 사망2,749)
중동 (18개 국가·지역)	·확진 : 4,678,513명 ·사망 : 111,037명	이란(1,212,481, 사망54,946) 이라크(593,541, 사망12,800) 모로코(435,189, 사망7,314) 이스라엘(408,277, 사망3,278) 사우디아라비아(362,488, 사망6,204) <해외지사 주재국> 아랍에미리트(204,369, 사망662)
미주 (35개 국가·지역)	·확진 : 34,953,366명 ·사망 : 847,008명	미국(19,147,627, 사망332,423) 브라질(7,504,833, 사망191,570) 콜롬비아(1,603,807, 사망42,374) 아르헨티나(1,590,513, 사망42,868) 멕시코(1,389,430, 사망122,855) <해외지사 주재국> 캐나다(555,207, 사망15,121)
유럽 (48개 국가·지역)	·확진 : 23,784,999명 ·사망 : 541,915명	러시아(3,131,550, 사망56,426) 프랑스(2,530,400, 사망63,701) 영국(2,382,869, 사망71,567) 이탈리아(2,067,487, 사망73,029) 스페인(1,893,502, 사망50,442) <해외지사 주재국> 독일(1,687,185, 사망32,107)
오세아니아 (4개 국가·지역)	·확진 : 30,974명 ·사망 : 945명	호주(28,350, 사망909) 뉴질랜드(1,795, 사망25) 파푸아뉴기니(780, 사망9) 피지(49, 사망2)
아프리카 (49개 국가·지역)	·확진 : 1,791,783명 ·사망 : 40,425명	남아공(1,021,451, 사망27,568) 에티오피아(123,145, 사망1,912) 케냐(95,992, 사망1,664) 나이지리아(85,560, 사망1,267) 가나(54,681, 사망335)
기타지역·영토	·확진 : 317,526명 ·사망 : 3,785명	* 질병관리청에서 5.6일부터 기타지역·영토 세부 지역명 미공개

① 환자 발생 현황 (1.3~현재 누계 / 단위 : 명)

	인원	전일대비
확진자	60,740	+967
완치(격리해제)	42,271	+836
치료 중(격리 중)	17,569	+110
사망	900	+21

② 시도별 발생 현황 (1.3~현재 누계 / 단위 : 명, ()은 전일대비)

서울	19,004 (+366)	대전	845 (+7)	대구	7,801 (+33)	부산	1,868 (+74)
경기	14,451 (+225)	세종	149 (+0)	경북	2,424 (+23)	광주	1,081 (+8)
인천	2,839 (+59)	충북	1,163 (+22)	경남	1,325 (+22)	전북	837 (+12)
강원	1,207 (+36)	충남	1,653 (+18)	울산	673 (+35)	전남	560(+5)
						제주	416(+9)

2 국내 동향

○ 신규 확진 967명, 국내발생 940명, 해외유입 27명(12.31)

- 질병관리청은 12.31(목)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를 60,740명(전일 대비 967명 증가)으로 발표
-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67명으로 사흘 만에 천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곳곳에서 집단감염 지속
- 서울 366명, 경기 225명, 인천 59명으로 수도권 지역 신규 환자만 650명이 증가했고, 추가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 총 900명으로 집계
-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환자는 126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918명으로 늘어났으며, 법무부는 구치소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수감자들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 됨
- 방역 당국은 다가오는 1월 2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하며, 3차 유행이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발표

[일일 및 누적 확진자 발생 현황(12.21~12.31 출처 : 질병관리청)]

구분	12.21	12.22	12.23	12.24	12.28	12.29	12.30	12.31
누적 확진자(명)	50,591	51,460	52,550	53,533	57,680	58,725	59,773	60,740
일일 증가인원(명)	926	869	1,092	985	808	1,046	1,050	967

○ 정부, 56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
- 정부는 백신 면역 효과와 관련하여 지속기간, 정기적인 접종 필요성 등을 염두에 두고 백신을 도입했다고 전했으며 국내 백신 개발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
- 또한 정본부장은 앞서 정부가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최고경영자와 2,000만 명분량의 백신을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구매 계약서 검토중에 있다고 발표

3 세계 동향

<중국>

□ 아웃바운드 동향

- 중국 해외 아웃바운드 시장 중단 지속 * 인·아웃바운드 단체여행 및 에어텔 업무 금지
- 한국 국토부, 8.31일부터 중국 출발 제 3국행 승객 무사증 환승 허용(8.31)

□ 방한관광시장 동향

- 방한관광 관련 업무 중단. 코로나19 사태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방역 관련 한-중 항공노선 대대적 감편 후, 7월 이후 운항 재개 확대 중
* (3.29) 3개 국적항공사 각 1개 노선 주 1회 운항→(12월) 7개 국적항공사 17개 노선 운영 중

□ 정부 동향

- 민항국,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방지 위해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 조정 통지’ 발표, 승객 중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해당 노선 운항 중단 기간 기존 1주→2주로 강화(12.17)
* 단, 승객 중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 시, 해당 노선 4주간 운항중지는 변동 없음
* 중국-영국 항공편 일시중단(2020.12.28.~2021.01.10)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코로나19 백신 대규모 접종 임박 시사, 빠르면 연말부터 공식 접종 추진 예상(12.16)
- 베이징시, 해외 귀국자의 베이징 직항편 이용 권유(12.21)
* 귀국자들은 ‘14(집중격리)+7(자가격리)’ 의학관찰 엄격 시행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랴오닝성 확진자(7명) 및 베이징 무증상 감염자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12.25~)
* (다롄시) ▲전체 시민 대상 핵산검사 실시(12.22~24) ▲행사·회의·포럼 등 사회모임활동 전면 중단(12.22~) ▲학원 수업 전면 중단 및 일부 선박 입항중단(12.25)
* (베이징) ▲중위험지역 4곳으로 증가(순이구 및 차오양구) : 원단(1.1) 및 춘절 공식행사 제한, 춘절 연휴기간 재택체류 장려 및 호텔·관광지 방문 제한 ▲차오양구 왕징 42곳 집중검사소 설치·거주민 전원 대상 코로나19 핵산 검사 실시(12.26~) ▲초·중학교 약 2주간 방학 실시 및 해외유입 차단 위해 서우두 공항, 다싱공항 근무자 전원 대상 핵산검사 실시예정(12.29) ▲순이구, 1급 긴급대응(一級響應) 방역 지침 따라 모든 아파트단지 출입통제(12.29)

□ 언론/SNS 동향

- 원단(1.1) 및 춘절 방역 가이드
* 연휴기간 코로나19의 전파가 심각한(베이징, 랴오닝 등)지역 방문금지와 위생관리 철저 등
- 베이징 순이구의 국지적 전파사례 관련 내용 이슈
* 세어하우스 및 쇼핑, 차량동승자, 회식 등으로 이어진 순이구 지역 전파사슬 요약정리
- 2021년 춘절연휴기간 대이동(春運)이 1.28(목)부터 3.8(월)까지 총 40일간 진행되며, 일일 평균 약 1천 만 명, 총 4억 700만 명 이동 예상

<비중국 중화권>

□ 아웃바운드 동향

- (홍콩) 해외 입국자 21일 격리조치(~2021.3.31)로 아웃바운드 수요 중단
- (대만) 단체관광 금지(무기한 연장), 항공기 환승 금지 부분 해제(6.25~)
- (몽골) 2021.3.31일까지 해외여행 금지 조치 시행

□ 방한관광시장 동향

- (홍콩) 대한항공(주3회), 아시아나(주2회), 티웨이항공(주1회) 외 기타 항공노선 운영중단, 관광목적 방한수요 전무
- (대만) 타오위안-인천 1개 노선, 주당 6개 항공사 약 9회 운항
- (몽골) 정기 항공노선 운항 중단(2.25~), 12.25일 운항 예정이던 자국민 철수용 인천-울란바토르 특별기 1월로 연기

□ 정부 동향

- (홍콩) 홍콩공항 입국자 대상 핵산검사 대기시간 4시간으로 단축(기존검사 대기시간 8시간)
- (대만) CDC(질병관리센터), '21.1.1부 대만 경유(환승) 금지 및 거류중 미소지 외국인 입경금지
- (몽골) 몽골정부, 육로 및 정기 항공노선 운항 중단기간을 당초 '21.1.6일에서 '21.3.31일까지 연장(특별기 및 화물기는 지속 운항)

* '21.1.6까지 선포한 울란바토르시 전면대응태세 조치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

□ 언론/SNS 동향

- (홍콩) 한국의 영국 방문 해외입국자 입국금지 조치, 영국발 입국 승객 중 확진자 발생 등 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 보도
- (대만) '21.1.15부 일반주택 자가격리 시 주택 1개당 자가격리자 본인 1인만 거주 가능(위반시 최대 한화 약 4천만원 벌금 부과 예정) 관련 보도
- (몽골) 코로나19 감염자 20명 추가 및 총 누적 확진자 1,195명

<일본>

□ 아웃바운드 동향

- 일본 대상 입국제한 73개 국가·지역, 입국 후 행동 제한 조치 140개 국가·지역(12.25 기준)
- 세계 주요 항공사(35개사) 시험 운용 중인 코로나19 감염 관련 디지털건강여권 (커먼패스), ANA, JAL도 금년 중 실증 실험 실시 예정

□ 방한관광시장 동향

- 한국 전역 감염증위험정보 레벨3(방문중지)에서 레벨2(불요불급의 방문)로 격하(10.30)

□ 정부 동향

- 도쿄도지사, 12.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944명* 발표, 비상사태 발효 당위성 시사, 이동을 최소화한 연말연시 보내기 재촉구
* 12.26일 948명에 이은 두 번째 최다 기록
-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장관, 감염 확산세 지속시 비상사태 재발효 가능성 경고(12.31)

□ 언론/SNS 동향

- 요시무라 오사카부지사, 일본 정부보다 빠른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신문 여론조사에서 호평(12.29, 아사히신문)
* 호감도 요시무라 오사카부지사(17.4%), 고이케 도쿄도지사(7.5%), 스즈키 홋카이도지사(4.5%) 순
-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해상자위대(5명) 및 노인복지시설(13명)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지속 보고중(12.31)

<아시아중동>

□ 아웃바운드 동향

- (태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비상상태 선포로 해외여행 수요 저조
- (말련) 해외여행 금지 조치 지속
- (베트남) 신생항공사 뱀부항공,美직항 허가 받아 '20년 말~'21년 초 운항 계획
- (인니) 국영 가루다항공, 코로나19로 중단된 관광산업 부양을 위해 미국·프랑스·인도 노선 재개 합의
- (필리핀)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령 해제, 일반 목적 출국 가능(10.21)
* 출국 : 왕복티켓, 여행자보험, 위험인지 서약서, 24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지참
* 귀국 : 코로나19 검사 및 14일 격리 필수
- (인도) 몰디브, 인도와 에어 트래블 버블(Air Travel Bubble) 체결 후 전년 대비 인도인 입국자 433% 증가
- (UAE) GCC 주요국,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긴급 국경 폐쇄 및 국제 항공편 중단 * 사우디아라비아(12.20~), 오만(12.22~), 쿠웨이트('21.1.1~)
- (터키) 코로나19 확산 방지 일환 정부의 이동제한 선포로 해외여행 수요 극히 저조
- (카자흐스탄) Air Astana 항공사, 10.21일부터 터키·UAE·우크라이나·독일 직항 노선 감편 예정
* 11.9일부터 터키와의 항공운항 추가 감편(주33회→20회)

□ 방한관광시장 동향

- (태국) 대한·아시아나항공, 귀국 원하는 태국 한국교민 및 화물수요 위주로 운영

- * 대한항공 : 주 7회, 아시아나항공 : 주 2회
- (베트남) 정부, 검역과 관련된 표준 절차를 공표할 때까지 일부 재개(9.25)
되었던 한국-베트남 정기 항공노선 운항 중단 결정
- (인니) 한국 신학기 이후 유학목적 방한 감소
 - * 비즈니스·선원 등 특수목적 비자신청 일 30~40여명 규모
- (인도) 한국·인도 양국 정부, 전세기 노선 탑승인원 제한 조치
 - * 한국행 전세기의 경우 한국인 탑승인원의 20% 비율로 인도인 탑승 가능
 - * 임시편 : 뉴델리→인천(1.8~1.9, '21.1.30, '21.2.27) / 인천→첸나이(1.6~1.7, 1.28~29)
- (UAE)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목적 제한 없는 여행 가능
 - * 단, 비자 발급 필요, 제한적인 항공편, 의무 자가격리 등 방한객 수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터키) 터키인 대상 관광목적 한국비자발급 지속 중단
- (카자흐스탄) 주카자흐스탄 한국공관, 11.12부터 카자흐스탄이 방역강화
대상 6개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증 발급업무 재개
 - * 단,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 방문 사증(관광 및 의료 포함) 발급은 지양

□ 정부 동향

- (태국) 방콕시와 춘부리주, 코로나19 확산 위험 높은 장소 폐쇄(12.2)
- (싱가포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공립 중학교 및 Junior College 학생 대상
한 달 최소 2일 온라인 가정 기반 학습 수행 계획 발표
- (말레이시아) 연말연시 집합 및 행사 금지, 변화가 집중 단속
- (인도네시아)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월1일부터 2주간 인도네시아
입국 전면 금지
- (인도) 국제선(정기편) 운항중단 ‘21년 1월 31일까지 연장 발표
 - * 단, 화물기, 전세기 등 승인을 받은 비정기편과 에어버블 협약체결국 예외
- (카자흐스탄) 보건부, 코로나19의 확산세 감소로 코스타나이 주를 레드 존
에서 옐로우 존으로 편입(12.30)
 - * 현재 카자흐스탄 전역 옐로우 존

□ 언론/SNS 동향

- (태국) 1주일 간 확산세 지속 시, 특별 방역 대책 시행
 - * 연말연휴를 앞두고 일부 주지사들 위험장소를 폐쇄 조치중
- (싱가포르) 의료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12.30) 관련 미국에서 발표
된 다양한 후유증 상세 보도
- (베트남) 베트남 비엠펙항공, 경영 정상화 위해 약 1억 1천 3백만 달러 규
모의 채권발행 계획
-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공항, 일반인 대상으로 24시간 코로나19 진단검

사 실시

- (인도) 한국-인도 외교부, 항공운행 정상화(에어버블) 논의(12.23)
- (UAE) 보건당국, UAE 내 코로나19 변종 감염자 일부 발생 보도(12.29)

<구미주>

□ 아웃바운드 동향

- (미국) 미국-캐나다, 멕시코 육로 국경 '21.1.21일까지 폐쇄 연장
- (캐나다) 에어캐나다, 캐나다-영국간 항공기 운항 잠정 중지
- (호주) 콰타스항공사, 해외여행 재개 이후 자사 출국 비행편 이용객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예정
-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쌍방향 트래블버블 내년 3월 이내 시행
* 현재 뉴질랜드→호주 입국객만 자가격리 면제 중
- (영국) 미국·스웨덴 정부, 영국발 승객 대상 최근 3일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 제출 의무화
- (독일) 루프트한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남아프리카 여행제한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행 운항 지속. 단, 독일입국 항공은 비운행, 승객 없이 회항 운행함
- (프랑스) 한국 포함 기존 무비자 단기 입국이 허용된 안전국가(liste verte)*의 경우 이동제한령과 상관없이 무비자 입국허용 유지 및 코로나19 검사서 의무제출 없음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우루과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단,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은 상호주의 조건)
- (러시아) 영국과의 항공운항 중단 조치 '21.1.12일까지 연장

□ 방한관광시장 동향

- (미국) 대한항공 LA-인천 낮 노선, 내년 1월부터 증편 예정
- (캐나다) 대한항공 캐나다-한국 승객 탑승률 20%대 중후반(연말휴가, 귀국수요 등)
- (호주) 대한항공·아시아나, 시드니·브리즈번·멜번 출발 임시항공편 부정기 운항지속 및 젯스타 골드코스트 출발 항공편 운항 중단 지속
- (영국) 영국항공 운항중단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 대한항공 런던-인천행 운항중단(~ '21.1.7), 아시아나항공 런던-인천행, 인천-런던행 운항중단(12.26)
- (독일) 인천-프랑크푸르트노선 감편 운항(아시아나 2021.2.28일까지 주3회, 대한항공 2021.2.28일까지 주2회, 루프트한자 2021.2.28.일까지 주3회 유지). 루프트한자, 인천-뮌헨노선 2021.2.28.일까지 운휴 연장
- (프랑스) 파리-인천 대한항공 주 3회(~12.31), 에어프랑스 주 3회 운항, 아시아나 운

항중단(~12.31)

- (러시아) 대한항공, 12.4일부터 모스크바-인천 매주 금요일 주 1회 운항. 아에로플로트항공, 12.3일부터 모스크바-인천 매주 목요일 주 1회 운항

□ 정부 동향

- (미국) 미 연방 하원, 코로나19 1인당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법안 통과. LA 카운티 공중보건국, 타지 여행 후 귀국 여행객 10일 자가격리 조치 시행 발표
- (캐나다) 정부, 항공사간 경쟁 방지 및 항공요금 인상 우려로 에어캐나다의 에어트랜젯(Air Transat) 인수합병계획에 대해 21년 1월중 승인여부 결정
- (영국) **최고 대응단계인 4단계 적용지역 확대 조치로 영국 전체 인구의 3/4 이상(4,400만여명) 조치적용 및 국내외 여행 불가, 개학 시기 '21.1.18일로 2주 연장**
- (독일) 코로나19 백신접종예방에 대한 과신 경고 및 최고 수위의 봉쇄령 기간 연장 검토
- (프랑스) **'21.1.2일부터 일부 지역 대상 통금 시작시간 오후 8시에서 6시로 변경, 통제 강화 조치**
- (러시아) 모스크바시장, 각 기업 및 단체에 12월 31일 유급 휴무 실시 권고

□ 언론/SNS 동향

- (미국) **미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 올해 목표치 2,000만회 중 18%만 달성**
- (캐나다) **토론토피어슨공항, 금년 1~9월 승객이동량,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
- (호주) 퀸즐랜드주,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최초 발생
- (영국) **포스트 브렉시트 딜 영국 하원 가결**
- (독일) 독일 차별방지기관 조사 결과, 코로나19 기간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 급증
- (프랑스) 코로나19로 은행카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접촉 결제건수, 2020년 6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0%, 59% 증가
- (러시아) **모스크바, 초중고 겨울방학 1.17일까지 연장**

※ [참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외교부, 12.31 10시)

□ 총 167개 국가·지역

구분	국가·지역수
입국금지	55개국(전일대비 +1) *중국 : (공통)기존 비자,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30개 성·시)각 지역 별도 방침 있음
격리조치	10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102개국(전일대비 -1)

* 입국제한 해제 : 20개 국가·지역

※ 참고자료

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3. 각국의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현황
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현황
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참고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12.31 기준)

○ 국가별 현황

국가	내 용	
중 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4.17)·상하이(3.30)·산둥(3.31)·산시(陝西)(3.16)·장쑤(3.23)·광둥(5.15) 등 지역 省·市内 여행 한해 영업 재개 ○ 여행사 영업 재개 관련 문화여유부 및 지역 문화여유청 등 관련 부서 통지 후 가능 ○ 중국대륙 주민의 마카오 입국 시 검역단계 하향조정 자기격리 면제(7.14) ○ 감염병 관리 우수 지역의 성(省)간 단체상품 판매 및 운영 허가(7.14)
홍 콩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싱가포르와 트래블버블 합의(10.15) * 시설격리·자기격리 해제, 여행목적이나 일정에 제한 없음
대 만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광) 5.27-8.3, 관광산업 종사자(5만명) 방역수칙 준수 현장답사 ○ (안심관광) 7.1-10.31, 일반국민 대상 국내관광 바우처 지급 ○ 관광국, 국제관광 관련 예산(한화 400억원) '안심관광' 지원금으로 추가 투입(8.28)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광객 유치) 10.1-12.31, 국경통제 완화, 환승금지 해제 등
일 본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관광활성화 「Go To 캠페인」 1조 6,794억엔 추경 예산 편성(4.7) ○ 관광청, 「Go to 트래블」 캠페인 7월 22일부터 개시 * 제외되었던 도쿄, 정식대상으로 추가 (10.1~) ○ 오사카부, 삿포로시 등 코로나19 급증지역 「Go To 트래블」 캠페인 일시 정지 기간 연장(12.14) ○ 「Go To 트래블」 캠페인 전국 일시정지 실시(12.28~21.1.11) * 도쿄도(12.18~), 나고야시(12.16~), 히로시마(12.24~)은 선행하여 정지 실시 * 기구매건 취소 수수료 면제, 사업자 대상 여행 대금 50% 보상 방침 ○ 「Go To 이벤트」, 「Go To 상점가」 캠페인 일시중지 (12.28~21.1.11)
태 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관광 1억 명 목표 수립(5.18) ○ 내각, 224억 바트(7.2억 달러) 규모 국내관광산업 부양책 승인(6.17) - 주요내용 : △국내관광 지원(180억 바트, 5.8억 달러) △의료진 및 보건 봉사자 휴일여행 지원(24억 바트, 0.8억 달러) △국내항공운임 지원(20억 바트, 0.6억달러) ○ 내각,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 계획 발표(7.1) ○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시행 첫날 19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등록(7.17) ○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으로 호텔 객실 예약 수 360만개 도달(7.21) ○ 태국관광청 5개 지역 안전 여행루트 공개 ○ 국내관광 진흥책 "We Travel Together"의 혜택 확대 방안 승인(8.27) ○ 관광청, 태국 거주 외국인(18만 명) 여행 장려를 위해 1인당 500바트 지원(9~11월) 준비 ○ 관광청, 타이항공 태국호텔협회·태국 여행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여행 패키지 마련 및 외국인 대상 관광 보조금 제공 지원 계획(10.30) ○ 관광청, We Travel Together 캠페인 내년 송크란까지 연장·확대 예정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부터 국제선 운항 일부 재개 ○ 자부담으로 격리에 동의하는 특정 외국인 입국 허용 * 노동허가 외국인/배우자/자녀, 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자녀, 거주 허가 외국인, 질병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보호자, 외국인 학생/학부모, △정부 초청인/해외 투자자/전문 기술자 ○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가이드라인 발표 ○ 경제 부흥을 위한 4개 유형*의 외국인 입국 허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참가 외국인, 영화 촬영팀, 의료관광객, Thailand Elite Card 가입자 ○ 정부, 국가 개방안 승인. 외국인 관광객 특별관광비자(Special Tourist Visa) 발급, 최장 9개월(270일) 태국 체류 가능(9.15) * 당초 검토되었던 푸켓 모델(Safe&Sealed)은 지역주민 반발로 폐기 ○ 특별관광비자(STV) 정책에 의거 10.1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매주 300명씩 허용(9.28) ○ 내무부, 보건부와 관계기관에서 승인한 장기체류 희망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태국 입국을 허용을 관보에 게재(9.30) ○ 특별관광비자를 통한 첫 외국인 관광객 그룹 10.20, 10.26, 11.1일 입국 예정 ○ 특별관광비자(STV)를 통한 첫 번째 관광객 그룹 입국(10.20) * 10.20일(상하이 49명), 10.26일(광저우 145명) 입국, 14일간 격리 필요 ○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 특별관광비자로 입국 가능한 저위험 14개 국가 명단 발표(10.21) *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 국가안전보장회의, 코로나19 격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4일 단축하는 방안 승인(10.29) ○ 태국관광청, 타이항공/태국호텔협회/태국여행사협회와 공동 특별관광비자(STV)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Amazing Thailand Plus Package' 웹사이트 출시(10.30) * 비자, 항공, 격리호텔, 격리 후 관광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여행비용 지원 등 ○ 공중보건 긴급운영위원회, 특별관광비자(STV) 입국객의 의무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계획안 승인(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된 격리기간 단축 계획안은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로 넘겨져 최종 결정됨 ○ 태국 관광체육부, 중국과 트래블버블 추진(11.6) ○ 태국 관광체육부·공중보건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4개 국가에 우선적으로 골프장 격리 허용 검토(11.11) * 웰니스 격리(Wellness Quarantine) : 골프장, 스파 등 이동 범위가 제한된 구역 내에서 건강관리를 받으며 14일간 격리기간을 보낼 수 있는 조치임 ○ 태국 정부, 중국과의 트래블버블 체결 연기(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내 코로나 확산(11월) 영향으로 태국정부는 중국과의 트래블버블 시행을 내년 여름시즌까지 연기 후 다시 논의할 예정 ○ 관광 목적의 한국인, 비자 없이 태국 입국 가능(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11이후 중단하였던 무사증 제도를 여행목적의 경우 한국 포함 56개국 대상으로 재개. 14일간 격리조치, 입국허가서(CoE),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보험 등의 지참요건은 유지.
싱가포르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일 이후 국내 이동제한 해제 3단계 계획 발표 ○ 박물관, 동물원 등 국내 관광지 영업 재개 ○ 싱가포르 관광청(STB), 7.3일부터 호텔 Staycation을 위한 영업 재개 승인 시작 ○ 싱가포르 관광청(STB), Enterprise Singapore 및 센토사개발조합과 9개월 동안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국내관광활성화 캠페인 실시 ○ SingapoRediscovers Vouchers(S\$100) 배포계획 등 세부사항 발표(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국민에게 올 12월 배포 예정, 내년 6월까지 유효 ○ 9.18일부터 싱가포르 관광지 수용인원의 허용범위 확대(25%→50%, 야외 행사의 경우 50명→250명 미만)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일부터 베트남·호주 기업관계자 등 필수인력 대상 입국 허용 * 입국 허용 국가: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 정부, 홍콩과 트래블버블 합의(10.15) * 시설격리·자가격리 해제, 여행목적이나 일정에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호주 빅토리아 주와 Air Travel Pass(싱가포르 입국만 허용) 실시 ○ 14일 이내 호주(New South Wales)·영국 방문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12.24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및 환승 금지, 사전에 입국승인을 받은 여행객에도 해당
말레이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단계의 이동제한명령(Recovery Movement Control Order, 6.10~8.31)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제외한 국내관광 전면 허용(6.7) ○ 7월부터 테마파크/워터파크 영업 허가(6.30) ○ 문화관광예술부, 국내여행활성화 캠페인 ‘큐티큐티 말레이시아’ 실시 및 홍보를 위한 5개 TV 광고 런칭(8.26)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0일부터 말련-싱가포르 상용 및 공무 출장자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 Green Lane 실시(7.15) ○ 정부, 2021년 2분기까지 외래관광객 입국 금지 가능성 언급. 각국 코로나19 2~3차 팬데믹에 따라 Green Lane 도입 재검토
베트남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etnamese People Travel in Vietnam 캠페인(6.1~연말) * 항공권, 호텔, 입장료 할인 등 ○ 하노이 시, “safe - friendly - quality - attractive” 캠페인 추진 ○ 다낭 시, “Danang Thank you” 캠페인 추진 ○ 대부분 국내선 운항 재개(6.4) ○ 철도청, 휴가철 탑승권 4,600장 50% 할인 판매(6.22~7.8) ○ 베트남항공, 7.22일 이후로 국내선 총 61개 노선 운영 계획. 국내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할인 프로모션 진행 ○ 베트남·호치만-다낭 국내선 항공 운항 재개(9.10)
인도네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여객운송 제한 완화 : 50% → 70% ○ 호텔업계, 7월부터 운영재개 계획 발표 ○ 발리, 국내관광 허용(7월 말) 계획 발표 ○ 2단계 국내관광객 개방 발표(7.31)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7일 한-인니 비즈니스 출장 신속입국(Fast Track) 시행 ○ 싱가포르-인니 바탐·빈탄섬 한정 출입 허용하는 코로나통로(Corona Corridor) 시행
필리핀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 ○ 팔라완섬 엘니도 국내관광 재개 ○ 국내선 항공 정상화를 위한 코로나19 항원 속성검사 의무화 채택 예정 ○ 10.1일 보라카이섬 국내관광 재개(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 지역사회 여행업 영업 재개 허용, 정원의 50% 이내 운영가능
인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5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 ○ 7.6일부터 전국 주요 유적지(타지마할 제외) 재개방 발표 ○ 관광부장관, 국내여행 활성화에 집중한 정책을 펼칠 예정임을 발표(8.27)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와 에어버블 체결 예정, 10.28일부터 인도-방글라데시 항공 재개
UAE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 호텔 등 Staycation을 중심으로 제한된 국내관광 허용 ○ 쇼핑몰, 관광지 운영 재개 ○ 국내 관광 재개의 신호탄으로 ‘Go Safe Certification*’ 출범 * 호텔, 쇼핑몰, 레스토랑, 관광 명소 등 대상 안전·청결 인증 제도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일부터 두바이 인바운드 관광 재개 ○ 두바이,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재개(‘20년 50만명 유치 목표) ○ 8.5일부터 한-UAE 간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 ○ 아부다비 긴급재난위원회, 아부다비 입국 허용 조건 승인, 8.27일부터 시행 ○ 12.24일부터 아부다비 인바운드 관광 재개, 관광객 입국 허용
터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8일부터 국내관광 재개 ○ 터키 내 14개 도시간 항공 운항 재개(6.18) 계획 발표(6.2) ○ 문화관광부, 7.1일부터 모든 관광시설 영업 재개(6.11)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중순부터 국제관광 재개 ○ 유럽 6개국(6개도시) 항공 운항 재개(6.18) 발표(6.2) ○ 9개국 36도시로부터 전세기 입항 시작(7월 1주차 우크라이나발 전세기 탑승객 1만 명 입국) ○ 터키 안탈리아에 일 1만 명 외래관광객 도착(7.20)
카자흐스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일부터 여행사 영업재개 허가 ○ 5.25부터 전체 국내 항공노선 운항 허가 ○ 6.1일부터 호텔, 리조트, 휴양지 영업재개 허가
미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현대미술관 재개관 ○ 플로리다주 관광청, 국내관광 활성화 광고 'The Power of Florida Vacation' 캠페인 실시 ○ 미 CDC, 크루즈 항해금지 명령 해제, 조건적 크루즈 운항 허용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주, 일본 여행객 대상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시 2주 격리 면제(11.6). 12.17일부터 방문객 의무격리 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한국인 대상으로는 면제 검토 중(10.29)
호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별로 지역 간 (Interstate) 여행 허가여부 상이 - 2차 유행으로 인하여 방문금지 대상자를 거주지역별로 세부 지정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국제도 간 여행안전지대(Travel Bubble) 연내 개시 추진 중 ○ 호주 뉴질랜드 정부 간 여행안전지대(Travel Bubble) 21년 3월 내 시행 추진
독일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일부터 2주간 통계에 의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경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여행 주의 등 3단계로 발령 *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단계 해당
프랑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나 일부 제한조치 유지 ○ 6.26부터 오를리공항(국내 및 유럽노선 거점) 운영 재개 ○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 - (마르세유) ~8.31까지 4개 박물관 무료입장 - (노르망디) 국내관광 신규 캠페인(#올 여름은 노르망디에서) 추진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역내) 6.15일부터 국경 개방,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개방 ○ (EU 역외) 7.1일부터 역외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점진적 개방
영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격리 면제 부여 대상 59개 지역 발표(7.10~) * 아웃바운드도 적용 - 국가별 감염 발생상황에 따라 대상국가 변경 지속 ○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에서 67개 지역 해제(7.4~)
러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일부터 의료면허 소지 치료목적 휴양소 영업 재개 ○ 7.1일 러시아 지역 간 국내관광 재개 ○ 12.15일까지 국내관광 활성화 캐시백 캠페인 시행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일부터 국제선 일부 운항 재개

참고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12.31 기준]

<한-중국>

□ 항공 동향 *민항국(民航局) 통지 의거, 3.29부터 항공사별 1개 노선 외, 전 노선 운항중단

* 중국 민항국(民航局)의 《5·1정책(항공사별 1개 국가, 1개 노선, 1주 1편 운항)》(3.29~) 지속 하, 《제5차 국제항공편 조정(외국항공사의 중국 노선 조건부 운항 재개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6.8~)정책 발표에 의거, 한-중 양국 국제선 확대 합의에 따라 항공노선 지속 증편 중(7월~)

구분	항공사	운항노선	운항일자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 (KE)	인천-선양	매주 금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수요일
		인천-톈진	매주 화요일
		인천-다롄	매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 (OZ)	인천-창춘	매주 화요일
		인천-난징	매주 일요일
		인천-청두	매주 목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목요일
	제주항공 (7C)	인천-웨이하이	매주 수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수요일
	진에어 (LJ)	제주-시안	매주 목·토요일
	에어부산 (BX)	인천-닝보	매주 일요일
		부산-칭다오	매주 목요일
	티웨이항공 (TW)	대구-엔지	매주 목요일
		인천-우한	매주 수요일
	에어서울 (RS)	인천-엔타이	매주 목요일
		인천-칭다오	매주 화요일
중국 항공사	중국국제항공 (CA)	인천-베이징	매주 금요일*10.30부터 베이징으로 직접 입국
		인천-항저우	매주 화요일
	중국남방항공 (CZ)	인천-선양	매주 일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목요일
	중국동방항공 (MU)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금요일
		인천-우시	매주 목요일
	샤먼항공 (MF)	인천-샤먼	매주 월요일
	산둥항공 (SC)	인천-칭다오	매주 금요일
		인천-엔타이	매주 목요일
	선전항공 (ZH)	인천-선전	매주 수요일
	칭다오항공 (QW)	인천-칭다오	매주 토·일요일
	춘추항공 (9C)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월요일
		인천-닝보	매주 금요일

□ 페리 동향

지 역	노선	내용
텐진	(진천선무) 인천-텐진	1.20부터 여객운송 중지
동북3성	(동방명주) 인천-단둥	1.28부터 여객운송 중지(화물수송은 지속)
	(범영훼리) 인천-잉커우	1.23~2.2 선박점검, 2.3부터 여객운송 중지(화물운송 재개)
	(대인훼리) 인천-다롄항	1.28~2.17 선박 정기점검으로 휴항 / 2.20부터 여객 중지(화물 재개)
산동성	모든 노선	승객 운송 중지, 화물 정상 운송
장쑤성	(연운항훼리) 인천-렌원강	여객 탑승 중지(2.1~)

<한-홍콩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운영	인천-홍콩 주 3회(수, 금, 일) 운항(6.16-)
아시아나	감편운영	인천-홍콩 주 2회(화, 금) 운항(3.24-)
티웨이	감편운영	인천-홍콩 주 1회(월) 운항(12.14-)
	운항중단	대구-홍콩, 제주-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이스타	운항중단	인천-홍콩(2.26-), 제주-홍콩(3.3-)
에어부산	운항중단	김해-홍콩(2.16-)
제주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2.18-), 제주-홍콩(2.12-)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홍콩(2.26-)
캐세이퍼시픽	운항중단	인천-홍콩(3.1-)
캐세이드래곤	운항중단	제주-홍콩(2.6-), 부산(2.6-)
홍콩익스프레스	운항중단	인천-홍콩(3.3-추후 공지시), 김해-홍콩(3.3-추후 공지시)
홍콩에어라인	운항중단	인천-홍콩(3.2-)

<한-대만>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2.25~)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아시아나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26~), 타이중-인천(2.26~)
	운항	타오위안-인천(10.25~12.31 주2회 예정)
진에어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화물기만 주2회 운항중)
제주항공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26~), 카오슝-제주(2.25~), 타오위안-대구(2.26~), 타오위안-무안(2.24~), 타오위안-부산(2.26~), 타오위안-인천(2.26~), 타오위안-제주(2.26~), 타오위안-청주(2.17~), 카오슝-부산(6.1~)
에어부산	운항중지	카오슝-부산(2.25~), 카오슝-인천(운항취소), 타오위안-대구(운항취소)* 타오위안-부산(2.17~)
이스타	운항중지	카오슝-인천(2.26~), 송산-김포(2.27~), 타오위안-인천(2.26~), 타오위안-제주(2.17~), 타오위안-청주(2.19~), 화롄-인천(2.18~), 타오위안-부산(2.16~), 화롄-부산(2.18~) ※2020.9.4 이후 업데이트 없음
티웨이	운항중지	카오슝-부산(2.21~), 카오슝-인천(2.26~), 송산-김포(2.27~), 타오위안-대구(2.11~), 타이중-인천(2.25~), 타이중-부산(2.18~)
플라이강원	운항중지	타오위안-양양(2.25~)
종화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2.28~), 카오슝-인천(2.28~), 송산-김포(2.26~)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12.31)
에바항공	운항중지	송산-김포(2.26~), 타이중-인천(2.27~), 카오슝-인천(2.27~)
	운항	타오위안-인천(주2회, ~12.31)
유니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26~)
타이거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대구(2.25~), 타오위안-부산(2.27~), 타오위안-제주(2.25~), 타오위안-인천(2.25~)
캐세이퍼시픽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10~)
타이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3.5~)
스쿠트항공	운항	타오위안-인천(주 3회, ~ '21.3.27)

□ 크루즈 동향

지 역	노선	내용
지룽	(프린세스)지룽-일본-한국-지룽	3.31 부산, 4.5 부산, 4.21 여수, 4.26 제주, 5.12 여수, 5.17 부산, 6.2 제주, 6.23 부산, 8.11 부산 방문 노선 취소 (3,500명/선 탑승)
지룽	(코스타)지룽-한국-일본-지룽	4.2 부산, 5.6 제주 방문 노선 취소(5,200명/선 탑승)

<한-몽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몽골항공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부산-울란바토르(20.2.25~21.3.31)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에어부산	운항중단	부산-울란바토르(20.2.25~21.3.31)
아시아나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3.31)

<한-일본>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한일 전 노선 운항중단(~2021.1.31)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021.1.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021.1.31 매일 1편 운항, 1.1, 1.2 비운항) 간사이-인천(~12.31 주 2편(수,목) 운항, 2021.1.1~2.28 주 3편(수,목,토) 운항) 나고야-인천(~2021.1.31 주 1편(토)운항, 1.20, 1.27 추가운항, 1.2 운휴) 후쿠오카-인천(2021.1.7~1.31, 주 1편(목) 운항)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021.1.31)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021.1.31 매일 1편 운항, 1.1, 1.2 비운항) 간사이-인천(~12.31, 주 5편(월,화,목,금,일) 운항, 2021.1.3~1.31 매일운항) 나고야-인천(2021.1.1~1.31 주 1편(금) 운항) 후쿠오카-인천(12.14~2021.1.31 주 2편(월,금) 운항, 1.1 비운항)
에어서울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2021.1.16)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2021.1.16)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021.1.16, 주 1편(금) 운항) 간사이-인천(~2021.1.16, 주 1편(목) 운항) 후쿠오카-인천(~2021.1.16, 주 1편(토) 운항)
이스타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12.31)
에어부산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2021.3.27)
진에어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021.2.20)
	감편운항	나리타-인천(~2021.1.16, 주 1편(수) 운항) 간사이-인천(~2021.1.16, 주 1편(금) 운항) 후쿠오카-인천(~2021.1.16, 주 1편(화) 운항)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2021.3.27)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 (10.16~, 주 2편(화, 금))
제주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2021.1.31)
	감편운항	간사이-인천 (~2021.1.31 주 2편(금, 일) 운항)

□ 페리 동향

지 역	노선	내 용
일본	(비틀)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카메리아)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칸푸페리) 시모노세키-부산	전 노선 운휴 (~12.31)
일본	(팬스타) 오사카-부산	당분간 운휴

<한-태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 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방콕-인천(KE652, 주 7회) 외 전 노선 운항 중단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방콕-인천(OZ742, 주 2회) 외 전 노선 운항 중단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항공, 타이항공,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노선 현재 운항 중단 - 방콕-인천, 방콕-부산, 방콕-대구, 방콕-무안 등

<한-싱가포르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 용
대한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3회(월/수/금)
아시아나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3회(수/금/일, ~2021.2)
제주항공	운항중단	싱가포르↔부산 노선 비운항(~2021.2.28)
싱가포르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7회(~2021.3)

<한-필리핀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 용
대한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KE624 주7회) 1개 노선 운항
아시아나	감편	마닐라→인천(OZ70 주7회), 클락→인천(OZ707/708 주1회) 2개 노선운항
제주항공	감편	마닐라→인천(7C2305/2306 10.22, 10.30, 2회 운항)
필리핀항공	감편	마닐라→인천(PR5468/PR5469, 10.14/ 10.14, 2회 운항)
세부퍼시픽	감편	마닐라→인천(5J194 주2회) 1개 노선 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이스타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플라이강원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진에어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팬퍼시픽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서울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델타항공	취항 연기	인천-마닐라(~미정)

<한-베트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3회 운항 인천-호치민 : 주 7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아시아나	감편운항	인천-하노이 주 3회 운항 * 한국에서는 승객 없이 빈 항공기로 베트남에 입국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승객 및 화물 운송
에어부산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호치민-인천 노선 주 2회 운항 재개 예정(7.22~)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제주항공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밤부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12월부터 주 1회 운항 예정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베트남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1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한-말레이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KL-인천 주 2회 운항(9월 주 3회 운항 검토 중) * 단, 현재 편당 탑승인원은 100명 미만이며, 항공화물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음
에어아시아	감편	간헐적으로 임시 운항편 예약접수와 취소 반복 중 * 한국입국 후 격리 해제를 전제로 11월 이후 KL-부산 노선 운항재개 의사 밝힘
말레이시아항공	감편	간헐적으로 임시 운항편 예약접수와 취소 반복 중

<한-인도네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가루다 인도네시아	감편	자카르타-인천 : 기존 매일 1회 운항 → 주 2회(화, 목 / 7월~)
	운항재개	발리-인천 : 기존 매일 1회 운항 → 운항 중단(5월~)
대한항공	감편 및 운항중단	자카르타-인천 주 3회(일/화/금, ~12.31) 발리-인천 운항 중단(7.1~12.31)
아시아나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 기존 매일 1회 → 주 3회 (수, 금, 일 / 3.6~)

<한-인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 인디아	운항중단	델리-인천노선 주 4편(화, 토) (~미정)
대한항공	운항중단	뭄바이-인천노선(주 3회) → 뭄바이 지점 폐쇄 델리-인천노선 (~미정)

<한-네팔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카트만두 운항중단(~12.31)

<한-UAE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두바이(3.5~)
에미레이트항공	부분재개	인천-두바이 주6회(10월~)
에티하드항공	운항재개	인천-아부다비 주7회(6.10~)

*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6.23일부터 목적 제한 없이 한국으로 여행(이동) 가능(단, 비자발급 필요)

* 단, 예약 상황에 따라(예약물이 저조할 경우) 항공편 취소 빈번

<한-터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터키항공	운항재개	이스탄불-인천 11월 운항(주 3회 화/금/토)
대한항공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0.03.01~'21.3.27)
아시아나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0.03.01~'21.3.30)

*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중단 상태로 별도 방문비자 발급 필요

<한-카자흐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아스타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2회(월/금)→1회(월) 운항(7.8~)
아시아나	증편	알마티-인천(격주1회→주1회(목)) *12.3부터

<한-우즈베키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우즈베키스탄항공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주7회) *3.16~
아시아나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주3회) *3.16~
대한항공	운항중단	타쉬켄트-인천(주3회) *3.16~

<한-스리랑카, 몰디브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델리지사 관할구역인 몰디브-스리랑카 구간 대한항공 운항이 잠정 중단 - 몰디브(말레)-스리랑카(콜롬보) 운항 중단(~12.31) - 스리랑카-한국(인천) 운항 중단(~12.31)

<한-영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12.23~ '21.1.7)
아시아나	운항중단	런던-인천(12.23~ '21.1.7)
영국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4.11~2021년 하반기)

<한-스페인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마드리드(~12.31) 인천-바르셀로나(~12.31)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바르셀로나(~12.31)

<한-이탈리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12.31) 인천-밀라노(~12.31)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12.31) 인천-베니스(~12.31)

<한-핀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핀에어	감편	헬싱키-인천(7.3~2021.1.31/주3회(화,금,토))
	기타	헬싱키-부산 신규취항 연기(3.30→ '21년)

<한-프랑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21.1.31)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파리(~12.31)
에어프랑스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12.31)

<한-스페인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마드리드(~12.31) 인천-바르셀로나(~12.31)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바르셀로나(~12.31)

<한-이탈리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12.31) 인천-밀라노(~12.31)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12.31) 인천-베니스(~12.31)

<한-독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루프트한자	감편	뮌헨-인천 (6.22~) 주3회 → (10.1~) 주5회 → (~11.30) 주3회 및 (12.1~2.28) 운휴 프랑크푸르트-인천 운항중단 → (12.1~2.28) 주3회 감편운행 연장
아시아나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8.8-9.30) 주4회 → (10.1~) 주5회 → (~10.11) 주4회 및 (10.12~2.28) 주3회, 감편운행 연장
대한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7.1~2.28) 주 2회, 감편운행 연장

<한-핀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핀에어	감편	헬싱키-인천(7.3~10.31/주3회(화,금,토)) * 11월(주7회) 점차 증편 예정
	기타	헬싱키-부산 신규취항 연기(3.30 → '21년)

<한-폴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LOT	운항재개	바르샤바-인천(7.3~) 주 4회(월,수,금,일)

<한-미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정상운행 (1)	인천-애틀랜타(주7회, 9.1~)
	감편 (8)	인천-샌프란시스코(주5회, ~2021.1.31) 인천-뉴욕(주7회, ~2021.1.31) 인천-시카고(주3회, ~2021.1.31) 인천-워싱턴(주4회, ~2021.1.31) 인천-LA(주11회, ~2021.1.31) 인천-시애틀(주3회, ~2021.1.31, 5월까지 비운항) 인천-댈러스(주3회, ~2021.1.31, 3~6월까지 비운항) 인천-보스턴(주3회, 12.1~2021.1.31, 11월 비운항)
	운항중단 (2)	인천-라스베가스(~2021.1.31) 인천-호놀룰루(~2021.1.31)
아시아나	감편 (4)	인천-뉴욕(주7회, ~2021.2.28) 인천-LA(주9회, ~2021.2.28) 인천-샌프란시스코(주4회, ~2021.2.28) 인천-시애틀(주3회, ~2021.2.28)
	운항중단 (1)	인천-호놀룰루(~2021.2.28)
델타	정상운행 (1)	인천-디트로이트(주7회 6.1~)
	감편 (2)	인천-시애틀(주7회→주4회, 7.1~) 인천-애틀랜타(주7회→주5회, 8.1~)
	운항중단 (1)	인천-미네아폴리스(2.29 - 8.31)
유나이티드	감편 (1)	인천-샌프란시스코(주7회→주3회, 7.1~)
아메리칸	정상운행 (1)	인천-댈러스(주7회, 6.4~)
하와이안	운항중단 (1)	인천-호놀룰루(3.4~, 기존 주5회)

* 대한항공 : 미국노선 전편 발열 체크 의무화 및 추가 기내 방역 강화

<한-캐나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캐나다	감편	인천-밴쿠버(AC064) : 주 5회 운항
	운항중단	인천-토론토(AC061) : 12월 재개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중단
대한항공	감편	인천-밴쿠버(KE071/072) : 6.1부터 주 4회 운항 인천-토론토(KE073/074) : 6.2부터 주 3회 운항

<한-러시아>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3.1~) 모스크바-인천(3.5~)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10.9~) * 12.4일부터 매주 금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오로라항공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9.16~) : 주 7회 운항 하바롭스크-인천(9.17~) : 주 7회 운항 유즈노사할린스크-인천(9.16~) : 주 7회 운항 * 8.1일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으나 현재 연말까지 운항 일정 취소
S7항공	운항중단	노보시비르스크-인천(9.2~) : 주 2회 운항(수, 토) 블라디보스톡-인천(3.1~) 이르쿠츠크-인천(3.1~)
야쿠티아항공	운항중단	야쿠츠크-인천(3.1~)
제주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3.1~)
에어부산		블라디보스톡-부산(2.26~)
아에로플로트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10.1~) * 12.3일부터 매주 목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 페리 동향

지 역	노선	내용
블라디보스톡	동해-블라디보스톡	동계 정기휴항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 (당초 휴항 예정 기간 : 2019년12월 ~ 2020년 3월초)

<한-호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젯스타	운항중단	골드코스트-인천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브리즈번-인천
		시드니-인천 12월 중 2회 / 2021년 1월 중 1회, 2월 중 2회
아시아나항공	부정기운항	시드니-인천 12월 중 4회 / 2021년 1월 중 5회, 2월 중 3회

<한-뉴질랜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뉴질랜드	운항중단	오클랜드-인천 12월 중 2회 / 2021년 1월 1회, 2월 1회
대한항공	운항중단	오클랜드-인천 12월 중 2회

참고3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 [해외지사 동향보고, 12.31]

□ 총 28개국

No	구분	국가	관리 조치
1	중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일부국가·미국·이란·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 15개국 대상 자국민 여행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3.17) ▶ 중국민 해외여행 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4.21)
2	비중국 중화권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지역으로 격상(홍콩 보안국, 2.25) ▶ 해외 모든 지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홍콩 보안국, 3.17)
3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4단계(방문부적합, 최대한 빠른 철수) 발령(대만 외교부, 3.19) ▶ 해외 모든 지역 여행 적색경보 발령(대만 외교부, 3.21)
4		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마카오 위생국, 2.23) * 고위험지역 방문객 대상 별도 지정장소에서 검역 강화 ▶ 한국 2단계 여행경보(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2.25) ▶ 해외 모든지역 2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3.19)
5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생국가 여행 자제 경고(환경관광부, 1.31) ▶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방문중지)으로 지정(국가비상대책위원회, 3.2)
6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류자격 보유자에 한해 일본 재입국 허용(9.1) * (PCR)출국전 검사증, (대사관 발급)재입국확인서 지참 조건 ▶ 중장기 체류 대상 외국인, 일본 신규 입국 허용(10.1~) * 출국 전 PCR 검사 음성,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 조치 확약이 가능한 기업, 단체 대상, 입국자 수 한정 조건 ▶ 양국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10.8) * 단기출장자용 '비즈니스 트랙' 과 장기체류자용 '레지던스 트랙' 으로 운영,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PCR검사 음성확인증 제시 등 조건충족시 14일 격리조치 면제 ▶ 대한민국 전역 감염증위험정보 레벨3에서 레벨2(불요불급의 방문)로 격하(10.30) ▶ 영국발 변종 유행 우려로 전세계 대상 신규 외국인 입국 재금지 * 한국/중국 포함 11개국/지역 대상 비즈니스트랙은 현행 유지
7	아시아 중동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경북 방문 자제 권고(주한태국대사관, 2.20) ▶ 태국 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위험국가 공무 여행 금지 발표(태국 내무부, 3.1)
8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해외여행 자제(싱가포르 보건부, 3.18)
9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8~3.31 이동 제한 명령으로 해외여행 금지(말레이시아 총리실, 3.16) ▶ 8.31까지 이동 제한 명령 5차 연장(말레이시아 총리실, 6.7)
10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제 국가로 한국 지정(베트남 총리, 2.21)
11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여행 연기·자제 및 방문금지 등 권고(인니 외교부, 2.24) ▶ 전세계 지역에 대한 비필수적인 해외여행 제한 및 해외여행중인 자국민 조기 귀국 등 권고(인니 외교부, 3.17)
12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7~4.13 루손섬 전체 봉쇄·격리 조치 시행(필리핀 대통령, 3.16) ▶ 해외노동자, 외국인 제외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필리핀 외무부, 3.18)
13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여행 자제 권고(인도 보건·가족복지부, 2.26) ▶ 대구, 경북 방문 자제 권고(주한인도대사관 2.24)

14		터키	▶ 한국, 이탈리아, 이라크-터키 출도착 항공 전면 중단 (터키 보건부, 2.29) ▶ 해외여행 자제 권고 (터키 보건부, 3.11)
15		UAE	▶ 한국 '저위험국가' 로 분류, 목적제한 없이 여행 가능(6.23)
16		카자흐스탄	▶ 한국 포함 감염 발생 27개국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카자흐스탄 보건부, 2.6)
17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으로의 여행 제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3.9)
18		오만	▶ 자국민 해외 출국 금지(오만 최고위원회, 3.18)
19		이란	▶ 외무부 한국 여행 자제 권고(이란 외무부, 2.29)
20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 항공 운항 중지. 한국여행 자제 권고(이스라엘 보건부, 2.23)
21	미주	미국	▶ 전 세계 모든 국가 대상 4단계(여행금지) 조치 해제(미국 국무부, 8.6) ▶ 한국은 3단계(여행재고)로 조정(미국 국무부, 8.6)
22		캐나다	▶ 한국 여행경보 2단계(주의)유지, 대구&경상북도 지역 여행경보 3단계(불필요한 여행 자제)로 변경(3.13)
23	구주	독일	▶ 대구/청도 지역 여행자제 연기 권유에서 해당지역 여행 자제 권고로 격상(독일 외무부, 2.26) ▶ 불필요한 해외여행 자제 권고 (독일 외무부, 3.15) ▶ 전 세계 해외 목적지 대상 여행경보 발령(독일 외무부, 3.17) ▶ 해외여행경고 해제(독일 외무부, 10.1) * 국가별 3단계 여행안전 경보 실시
24		프랑스	▶ 한국 여행등급 1단계(정상)에서 3단계(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제 권고)로 격상(프랑스 외무부, 2.25)
25		영국	▶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 (영국 외무부, 3.17) ▶ 해외여행중인 영국국민 즉시 귀국 권고 (영국 외무부, 3.23) ▶ 여행금지 권고 해제(7.4)
26		러시아	▶ 한국 여행자제 권고(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관광청, 외교부, 2.26) ▶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권고(러시아관광청, 2.27) ▶ 모스크바 제외 항공운항 제한(러시아교통부, 3.1) ▶ 국제항공노선 운항 전면중단(러시아연방항공청, 3.27) ▶ 국제항공노선 일부 운항 재개(8.1) ▶ 방한항공노선(모스크바-인천) 운항 재개(9.27)
27		벨기에	▶ 꼭 필요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하지 말 것을 권고(벨기에 외무부, 3.2)
28	대양주	호주	▶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경보 발령(호주 외교통상부, 4.1) ▶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예외적 경우 제외 모든 해외 출국금지조치 발효(호주 외교통상부, 3.25)

참고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31)

No	시행일	국가	관리 조치
1	2.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기존사증 효력 잠정중지 ▶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베이성 관련 제한사항 8.10일부 해제 ▶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 및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 중지 ▶ 특별입국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 시행 -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연락처 확인 -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2주간 앱을 통해 자신의 상태 의무보고
		전세계	▶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 이용 중지
2	2.12	홍콩 · 마카오	▶ 특별입국절차 시행
3	3.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중지 ▶ 일본 주재 모든 공관 발급 일본 국민에 대한 기존사증 효력 잠정 정지 ▶ 신규 비자발급 심사강화 ▶ 특별입국절차 시행
4	3.12	이탈리아 · 이란	▶ 특별입국절차 시행
5	3.15	프랑스 · 독일 · 스페인 · 영국 · 네덜란드	▶ 특별입국절차 시행
6	3.19	전세계	▶ 특별입국절차 전세계 확대 시행
7	3.22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발 입국객 전원 대상 별도 지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 * 무증상자 외국인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 무증상 내국인 : 자가격리, 입국 후 3일 이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8	3.2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발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 *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무증상자 :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 ▶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 *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무증상자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시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 및 한국 내 체류 보장
9	4.1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 입국자(내 · 외국인)는 14일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국익, 공익 목적 예외적 사유 제외)
10	4.13	아 · 태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 지역 151곳 중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 · 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 ▶ 4.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 · 복수사증 효력 잠정 정지.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 ▶ 단기취업(C-4), 취업 · 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
11	4.13	미국	▶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
12	7.13	방역강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서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 * 해당국가 발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
13	7.20	방역강화 대상국	▶ 기존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 7.20일부터 2개 국가 추가

14	7.31	재입국 외국인 관리 필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파악, 입국 심사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할 경우(관내 고시원, 모텔 등) 시설격리 ▶ 난민 신청자 중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 대상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
15	7.31	특별 입국대상자	▶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 기재 의무화
16	8.3	방역강화 대상국 및 러시아 출항 선원	▶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
17	8.10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해지 ▶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사증제한 해지 ▶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해지
18	8.17	전세계	▶ 8.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한국정부의 방역조치 위반 시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부담
19	8.24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4일 0시부터 상대국가의 한국인 대상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정도 및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유입 외국인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부담 조치 - 126개국 중 58개국이 한국인환자 대상 일부지원, 66개국이 전액지원 중(12월 기준)
20	9.30~ 10.4	전세계	▶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3일 이내 진단검사,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 계속 실시
21	12.23~ 21.1.7	영국	▶ 영국 항공편 일시중단,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실시, 격리해제 후 추가 PCR검사 실시. 입국심사 강화 및 발열 기준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

※ (4.13일 시행) 사증면제 잠정 정지 국가·지역(90곳)

구분	사증면제협정국가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아·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미주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중동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레소토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참고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1231 기준]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중화권	중국	○ 중국 국민 대상 접종 계획은 현재 발표 된 사항 없음 - 고위험군인 해외 파견 노동자·코로나 방역 의료진 등 특수직군에 한해 접종 시행 중 - 코로나19 활용 외교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백신 지원 진행 중 ○ 우한시, 12.24부터 15개구·48개 시설(검역소/항구/공항/수산시장/의료기관) 등 일부 인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긴급접종 실시																	
	홍콩	○ 홍콩정부 총 2,250만 회 분의 백신 확보 완료(12.24) - 중국 시노백, 미국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각 750만 회 분량 백신 구매 계약완료 - 2021년 1월 시노백, 1분기 화이자, 중순 아스트라제네카 조달 예정 - 우선 접종 대상 : 의료업계 근무자, 60세 이상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 300만 명 - 홍콩거주민 중 희망자에 한하여 무료 접종 추진 예정 - 보건부장관 위원장으로 하는 백신유통 태스크포스 발족, 백신 부작용 지원을 위한 보상기금 조성 등 추진																	
	대만	○ CDC(질병관리센터), COVAX 등을 통해 1,500만 명분을 기 확보한 것으로 발표 - 백신 안정성, 효과성, 접종시기 등에 신중한 입장으로 이르면 내년 3월 의료진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460만 명분 우선 접종 개시 예상																	
	몽골	○ 몽골이 COVAX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 국가 리스트에 포함 - 65세 이상 고령자,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만성질환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 ○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유럽 연합국들과 협력 예정																	
일본	일본	○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 안제스(DNA 백신) :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개시 - 시오노기제약(유전자 재조합 백신) : 임상시험 개시(12월) - 타케다약품공업(유전자 재조합 백신) : 미 노바백스의 제조기술 이전 - KMI바이오로직스 : 내년 1월 1·2차 임상시험 동시실시, 2023년 실용화 목표 - 다이이치산쿄(mRNA 백신) : 내년 3월 임상시험개시 목표 ○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 미국 화이자 1억 2천만 회분(6천만 명분) - 미국 모더나 5천만 회분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 토아미화학(아비간) : 제조판매승인 신청(10.16)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12.21) ○ 정부 상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 발표(12.23)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1만명	내년 2월하순~3월상순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300만명	내년 3월중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만~4천만명	내년 3월하순~4월상순	4	기타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1만명	내년 2월하순~3월상순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300만명	내년 3월중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만~4천만명	내년 3월하순~4월상순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내년 4월 이후(미정)																
이중동	싱가포르	○ 모더나(Moderna) 제약사, 당국에 코로나19용 백신 사용 승인 요청. 12월중 도착 예정 ○ 백신은 싱가포르인과 장기거주자는 무료로 접종 가능 - 1차분은 12월 말부터 접종 예정, 2021년 말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 목표 * 접종 우선순위는 의료 종사자, 노인 및 취약 계층 ○ 정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 내년 3분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 ○ 총리, 국민 무료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를 위해 약 1조백억원 준비 발표 ○ 보건부, 12.30일부터 의료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내년 2월 7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 접종 계획 ○ 국가질병관리센터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30명 대상 12.30일 백신접종 시작																	
	베트남	○ 나노젠(Nanogen) 제약사,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임상시험 착수 *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 5월 출시 계획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당국, 자국 백신을 포함하여 총 16억회 분의 코로나19 백신 주문, 현재 1억회 분 확보 (1인당 2회분 분량 접종 계획) ○ 보건 당국, 초기 접종 순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6월까지 → 의료/보건 부문 종사자 2천만명 접종 - 내년 8월까지 → 50대 이상 연령층, 50대 이하 합병증 환자 2억6천만명 대상 접종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 보건 당국, 시노팜(중국 국영 제약사) 코로나19 백신 공식 등록(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부터 UAE에서 시노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실시, 9월 긴급사용 승인 - UAE 거주자 대상 백신 무료 접종 실시(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 3상 시험 참여자 : UAE 내 120여개 국적 총 3만 1천여 명 * 긴급사용 대상자 : 의료진, 공항 근무자, 교사 등 * 임상 3상 시험 중간 결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86% 면역 효과 ○ 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 시작(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격 : 아부다비 거주자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며 18세 이상 건강한 자 - 선정방법 및 인원 : 온라인 신청자 대상 당국의 심사를 통해 총 5백명 선정 - 임상 3상 시험 방법 : 20일 간격으로 2회분의 백신 접종 후 방문, 원격 상담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 ○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단계별 접종시작(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65세 이상 국민/거주자, 감염에 취약한 인력(의료진 등), 만성 질환자 등 - (2단계) 50세 이상 국민/거주자, 보건의로 일반 종사자 등 - (3단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거주자 ○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긴급 등록(12.22) 및 국민/거주자 대상 무료 접종 시작(12.23)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보현황, 접종 계획 발표(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당국은 현재 16개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 중이며, 이중 가장 빠른 것은 1개 제약회사가 임상 1상 완료 후 2상 진행 예정(12월 25일) - 터키 국민 2,500만 명 총 2회 접종 가능한 약 5,000만 회분의 백신 확보 완료 (중국 시노백 제품) - 12월 25일 첫 접종시작, 2~3주간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 예정 - 접종 대상 5개 그룹으로 분할하며, 의료종사자, 65세 이상부터 접종 시작 - 모든 접종비는 정부 부담으로 무료 배포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부,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등록, 생산 및 도입 가속화 협정 체결(12.4) ○ 총리, 대통령에게 카자흐스탄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1차, 2차 임상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중 200만 도스(1회 접종분) 생산 및 2021. 3월말까지 3차 임상 완료 예정 ○ 내년 2월부터 의료진, 경찰, 교사 등 대상 희망자에게 러시아 개발 Sputnik-V 백신 접종 예정(12.21)
미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타항공,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운송 체계 구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내 위치한 대규모 물류창고 및 냉각시설과 의약품 수송관련 인증을 받은 세계 45곳 공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에 코로나19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준비 완료 - KLM Martinair Cargo, Virgin Atlantic Cargo와 협력 ○ FDA, 12.18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더나 백신, 3만 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2차 접종 시 94.1 예방 효과 기록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원인 연구 ○ 12.14~12.23 기간 미 백신 100만회 이상 접종 완료, 일반인 백신 접종은 내년 여름 예정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부, 세계 두 번째 화이자 백신 캐나다 내 사용 승인(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내 24만9천회 분 도착 예정, 도착 1~2일내 14개 지역서 무료접종 시작 - 내년 9월까지 캐나다국민 대다수 접종 계획 ○ 보건부, 모더나(Moderna) 백신 승인(12.23), 연내 168천회분 도착 ○ 내년 1월까지 승인된 2개사 백신 총 120만 회분 수령 예정
대양주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당국, 코로나19 백신 최초 접종 2021년 3월부터 가능. 단 의무접종은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계 종사자와 고령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예정 - 2021년 중 호주 국민 대상 백신 접종 가능 - 해외입국자 의무접종 여부는 고려 중 - 호주 전체인구가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의 백신 확보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구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초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시작(12.8/V-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접종자(90세 할머니) 시작으로 의료진, 80세 이상 고령자, 요양원 근무자 등 우선 순위 접종자 대상으로 50개 시범병원에서 접종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세 엘리자베스 여왕도 수주 내 접종순위 도달 시 접종 예정 ○ 세계 최초 파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 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 하루 만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영국 NHS는 과거 약품, 음식, 백신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당분간 백신접종 중단 권고 ○ 임신부는 백신 접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롭다는 증거는 없으나 임신부대상 임상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임. ○ 백신 접종 첫 1주일간 총 14만명 접종 ○ 최고 의료책임자, 새로운 변종이 백신이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 없다고 발표 ○ 12.20일 기준 616,933명 접종 완료 및 주당 1백만명 접종을 목표로 확대 중 ○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두 번째 접종 완료 7일 경과 후 면역력 생성 ○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 세계 최초 승인(12.30) 및 1.4일 접종 시작 예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12.27일부터 개시 예정, 80대 이상 노인 및 의료진 우선 접종 ○ 보건당국 산하 백신위원회, 백신 우선 접종 권고 초안 마련 및 관계 기관에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그룹 : 80세 이상 고령자, 양로원 혹은 요양원 거주자, 응급실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위험 그룹과 접촉이 긴밀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접종 대상 규모 : 860만 명 - 두 번째 그룹 : 76~80세 고령자, 치매환자 돌봄시설 거주자 및 의료진, 돌봄시설 의료진, 간병인 등 (접종규모 약 6백만 명) - 세 번째 그룹 : 71세~75세 고령자, 망명 및 노숙자 보호소 거주자, 의료 시설, 특히 병원 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련 직위 (예 : 클리닉 및 관행의 청소 직원 또는 병원 기술 직원) 및 공중 보건 서비스에 고용 된 직원에 노출 위험이 중간 정도인 직원(접종 규모 약 550만 명) - 네 번째 그룹 : 66세~70세 고령자, 중등도 질환환자 접촉자, 교사 및 교육자, 계절근로자, 육가공 근로자, 택배업 및 유통업자 등, (접종규모 약 690만명) - 다섯 번째 그룹 : 60세~65세 고령자, 소매업, 주 및 연방 정부 주요직원, 중요 인프라 직원(소방대, 군대, 경찰, 대중 교통 또는 폐기물 관리) (접종규모 약 9백만명) - 그 외 4천5백만명 ○ 12.29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약 42,000명 접종 완료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고령층 등 취약집단부터 우선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 직원 등 100만 명 대상 우선 제공 - (2월~) 코로나19 취약 만성질환 환자, 의료진을 중심으로 1,400만 명 대상 제공 - (4월~6월) 전 국민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접종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프랑스 인구수보다 많은 1억 명 가용 백신 2억 회분 확보(인당 2회 접종) * 무료 제공으로, 사회보장예산 약 1조 9천억 원 책정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백신 : 2종(Sputnik V, EpiVacCorona) - Sputnik V 생산계획국가 : 헝가리, 인도, 한국, 브라질,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 개시(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접종대상 : 의료진, 교사, 공공서비스 분야 근로자 / 18~60세 - 백신생산량 : 232,000 도즈(~2020.12), 6백만 도즈 / 월(2021.1~) - 기타 : Sputnik V 접종 유효기간 2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결합 접종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상에 앞서 공식승인 사전진행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와 백신 계약 체결. 화이자 백신 승인에 따라 90세 이상 시민부터 접종 개시